

일상 무너진 여행업계, 오늘도 숨죽이며 버틴다

무안공항 1년째 폐쇄…광주·전남 여행사 전수조사 해보니

애도 속 '침묵의 절규'…매출 50~90% 급감·폐업 속출 희망 때문에 문 못 닫아 "무안공항 재개항만이 살길"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1년 가까이 폐쇄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여행사들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였다.

광주일보가 한국여행업협회에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신고 접수한 광주·전남 여행사 11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폐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업체 (18개), 취재를 거부한 업체(43개)를 제외한 52개 여행사 모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고, 계속해도 적자만 쌓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취재를 거부한 업체나 취재에 응한 여행업계 모두 "많은 여행객들이 죽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나설까"라고 했다.

모든 업체의 매출이 50~90% 이상 급감해 폐업이 속출했는데도,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많았다. 폐업하지 않으려면 직원 감원과 겸업은 일상이 됐으며 재개항 희망 때문에 휴업·폐업조차 쉽게 결정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숙(54·강남여행사)씨는 "2016년 여행사를 차렸는데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고, 또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하니 2024년 공항 참사"며 "여행업을 그만두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직업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12~2월이 여행업 성수기인데 매출이 싹 사라졌고, 예약금 환불 과정에서 손님·현지업체 사이에서 갈등과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고 한다. 결국 보험회사에 취직해 보기도 하는 등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할 처지가 됐다고 한다.

박재구(45·광주지구별 여행)씨도 "직원들을 내 보내고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혼자 버티고 있다"며 "나이도 있고, 지금 와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고 털어놨다.

화순에서 40년 가까이 여행업에 몸담아온 김정록(66·남일관광)씨는 지난 1년간 매출 손실만 40~50%인데 정부나 자체 지원도 전혀 체감되지 않고, 생계가 막막해 내년 휴업을 고민하고 있다.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항공편이 뜨지 않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고, 고객들이 타 지역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씨는 "무안공항이 재개항되지 않으면 내년 불엔 정리하고 휴업에 들어가려고 한다"며 "너무 안타까운 사고라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 속으로만 광경 앓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재개항되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행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광주시 남구에서 8년째 여행사를 운영 중인 김나중(61·삼성관광)씨는 "매출이 70% 가까이 줄었다"며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형의 도움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고, 생활비도 최대한 줄여가며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안공항이 막히면서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늘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고객과 여행사에 전가됐다"

고 덧붙였다.

여행업계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제2의 코로나', 혹은 그보다 더한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임옥란(64·광주알프스관광)씨는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건 35년 만에 처음"이라며 "코로나 때는 지원책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없다"고 호소했고, 강형곤(49·고니투어)씨는 "평일엔 여행사 문을 열고, 저녁과 주말엔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다"며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원숙(49·트래블월드)씨 역시 "코로나 3년을 겪으며 이미 손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번 참사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매달 고정비가 나가는데 매출은 바닥이라 대출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가 누적되는 동안 피해 접수와 여행업계 지원 모색 간담회를 연 적도 있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는 여행사도 다수였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재난지역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전남 일부 지역과 달리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졌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광주지역 여행사 대표는 "사고와 연관된 여행사 70~80%가 광주 지역 여행사였는데도 광주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은 더욱 부족했다"며 "기존 판매하던 여행 상품의 95%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면서 사고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공항 폐쇄 이후 11개월째 마트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 업계에서는 결국 업계가 완전히 부활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무안공항을 재개항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강준형(42·무안기억플랫폼)씨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여행상품 취소율이 80~90%에 달했는데도 정부나 자체 지원금도 전혀 없어 힘들었다"며 "폐업도 고민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버텨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안공항 재개항이다"고 말했다.

박경음(38·힐링아일랜드섬투어)씨는 "참사 이후 회사가 어려워지자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기준 6개월이던 출산휴가를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버텨보려 노력했다"며 "여행사들이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안공항 대신 부산·김해·정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버스 수송비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37년째 여행업에만 종사해온 60대 이정우씨도 "가장 바라는 것은 조속한 무안공항 재개항이다"며 "현실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어렵다면 정책적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형 행사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민경·양재희·윤준영 기자
minky@kwangju.co.kr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둔 25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적막감이 감도는 가운데, 사고 당시의 이름을 기억하듯 차가운 거울바람만이 정지된 유동 사이를 지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 봉황·동강면 오리 농가 AI 잇따라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역인 나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르면서 가금류 사육 농가가 확산 우려로 초긴장 상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나주시 동강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종오리는 식용 오리의 번식을 위한 부모 오리로, 지난 21일 나주시 봉황면 육용오리 농장에 이

어 나주에서 또다시 AI가 발생했다.

특히 전남은 전국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627만 4000마리)의 62%(387만 3000마리)를 키우는 전국 최대 오리 사육 지역이다.

나주는 전남에서도 가장 많은 오리 사육 지역으로 41개 농가가 키우는 오리만 70만 5000마리에 이른다. 21일 발생한 농장 주변으로 10km 이내에

만 21개 농가가 41만 6000마리의 오리를 사육 중이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항원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돌입했으며, 소독·정밀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검출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 농가에서는 전실 쇠임, 소독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감사관 채용 비리'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2심서 감형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의혹'으로 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폴려났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지난 24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께 A씨가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B씨가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 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후보자 2명을 인사위원회에 보고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 공무원의 임용 시험 실시 및 진행과 관련된 권한은 모두 인사위원회와 그 기관들에 있고, 인사위원회 간사인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사무 처리를 할 뿐 선발시험위원회의 직무 의결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상 직무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험 점수 순위를) 사후 수정한 위원들은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다는 '회의시간이 길어진다' 등 이유로 수정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위원회 모두 광주교육청 소속이 아닌 외부 위원이고, A씨보다 높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사정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와 입건 대상자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